

- **주요 뉴스** 미국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2.9%)로 다음달 연준 금리인하 여력 확대
 - 중동지역,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앞두고 긴장 지속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 표시
 - 영국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2.2%로 예상치 하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및 9월 금리인하 기대 확대가 영향
 - 주가 상승[+0.38%], 달러화 상승[+0.04%], 금리 보합[-]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주요 업종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며 5거래일 연속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2주 만에 최고치로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유로화 대비 약세 불구, 엔저 영향으로 소폭 상승
유로화는 0.17% 상승, 엔화는 0.3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보합
독일 및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1bp,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55.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8.5원, 0.04% 상승), 한국 CDS 하락

		8/14일	8/13일	전일대비			8/14일	8/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455.2	5,434.4	0.38%	국채 금리 10y	미국	3.84%	3.84%	0bp
	유럽	504.10	501.66	0.49%		독일	2.18%	2.19%	-1bp
	중국	2,851	2,868	-0.60%		영국	3.83%	3.89%	-6bp
	일본	36,442	36,233	0.58%	CDS 5y	한국	36bp	37bp	-1bp
	한국	2,644.5	2,621.5	0.88%		중국	64bp	65bp	-1bp
환율	달러지수	102.6	102.6	0.04%	위험 지표	EMBI+	-	424	-
	유로화	1.1012	1.0993	0.17%		VIX	16.2	18.1	-10.65%
	엔화	147.33	146.84	-0.33%		WTI유	77.1	78.4	-1.58%
	위안화	7.1411	7.155	0.19%	원자재	구리	404.3	405.2	-0.22%
	원화	1,358.00	1,366.50	0.62%		금	2447.9	2465.2	-0.7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전년동월비 2.9%)로 다음달 연준 금리인하 여력 확대

- 미국 7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전월비 0.2%)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3년 반만에 3%를 첫 하회. 근원CPI상승률도 3.2%(0.2%)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1년 4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부문별로는 임대료 등을 포함해 주거비가 전월비 0.4% 상승하며 CPI 상승의 90%를 차지했으며, 식료품 가격도 0.2% 증가. 필수 생계비의 상승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소지
-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세 전환이 확고해지면서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확대. 금리 인하 폭은 추가적인 경제지표 판단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언급하며,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가 더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힘
- 일각에서는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제기.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25bp 인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 한편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세 차례(9월, 11월, 12월) 남은 가운데, 연내 총 10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중동 지역,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앞두고 긴장 지속

- 하마스는 이스라엘 합의 지연을 이유로 8.15일 휴전협상에 불참을 발표. 다만 협상 직후 중재국과 협의를 시사. 한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보복을 재고 하도록 강요하는 서방을 비난하며 물러선다면 신의 분노를 입을 것이라 발언
-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관계자는 이란이 대리세력을 통해 이스라엘 하이파 주변에 있는 민간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 보다 광범위한 공격은 이스라엘의 담수화 시설, 원자로 및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도 포함. 이스라엘은 동맹 국가들과 함께 경계 태세를 유지

- 한 중동 전문가는 이란이 이스라엘 민간 시설을 공격해 민간인 다수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격을 할 것이라고 지적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의사 표시

- 기시다 일본 총리는 9월 예정되어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의향을 시사. 9월 선거의 유력 후보로 이시바 시게루, 고노 다로, 모테기 도시미쓰 등이 거론. 분석가들은 불확실성 확대에 위험자산인 주식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나 기시다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하면 심각한 부정적 반응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한편 새로운 총재 후보들은 대체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용이해질 가능성

■ 영국 7월 소비자물가, 2.2%(전년동월비)로 예상치 하회

-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이 올해 첫 반등(6월 2% → 7월 2.2%)했으나 이코노미스트(2.3%) 및 영란은행(2.4%) 예상치는 하회. 영란은행이 주시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는 5.7%에서 5.2%로 둔화하며 2년래 최저치를 기록
- 물가 상방압력 완화로 영란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확보되면서 트레이더들의 금리인하 기대가 연내 최소 1회 이상에서 2회로 확대(44bp → 51bp)

■ ECB, 일부 은행들의 상업용부동산(CRE) 가치 평가의 취약성을 발견

- ECB는 은행들이 CRE의 시장 가치를 현재 회수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향후 자산매각 시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시장 부진 시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또한 감정 평가 시 과거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거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관행 등도 시정할 필요

■ 뉴질랜드중앙은행(RBNZ), 4년 만에 첫 정책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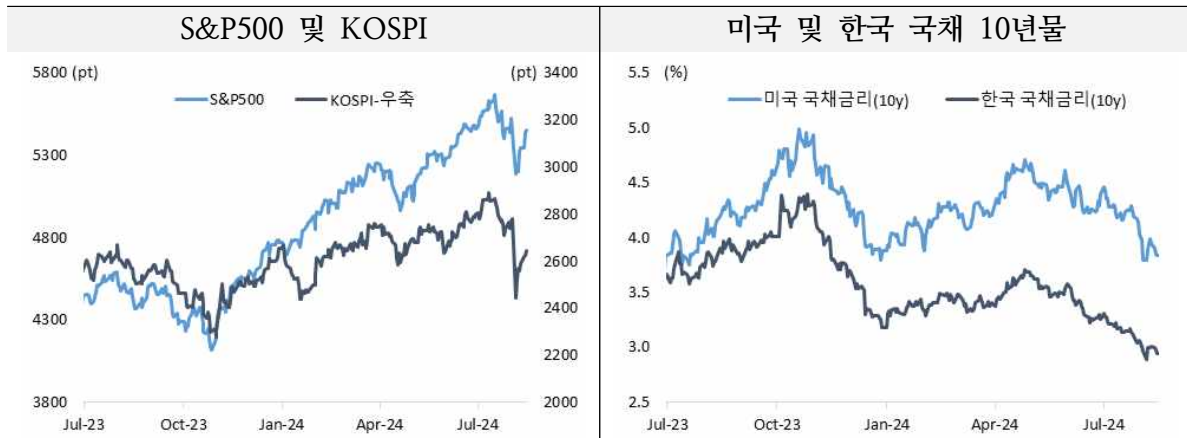
- RBNZ는 정책금리를 5.5%에서 5.25%로 인하. 인플레이션이 1~3%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지표 추이에 따라 향후 수개월 내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5 현지시각 기준)

- 영국 2분기 GDP 잠정치, 미국 7월 소매판매 및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중국 7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및 실업률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6, E-mail wjhwang@kcif.or.kr